

2022년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

- 일시, 장소 :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청파감리교회
- 인도 : 이뿐이 사제(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성공회 원주교회)

◆ 모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시편 104:24,30-31)

임재의 기원 인도자

징울림 3타(김준표 목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재송 맡은이

“은혜주신 하나님, 사랑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정성 받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삼성송 맡은이

1.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제
우리안에 생기불어 은총과복 나리셨네
받는소리 : 아- 헤- 헤에에 -- 거룩하신 하나님
2.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운데 임하셨네
그이름은 예수시라 구원의길 보이셨네
받는소리 : 아- 헤- 헤에에 -- 거룩하신 예수님
3.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안에 임하셨으니 성령님의 크신은혜라
받는소리 : 아- 헤- 헤에에 -- 거룩하신 성령님
4. 주님의 은혜로 한가족이 된 우리
하나님과 내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힘써서로 섬기면서 하나님나라 이루리라
받는소리 : 아- 헤- 헤에에 -- 하나님나라 이루리라

신앙의 내력 말은이

아브라함 믿음이 파주주루루 훑어져 믿음의 자손 되었네
출애굽의 역사가 파주주루루 훑어져 해방신앙 되었네
예언자의 외침이 파주주루루 훑어져 한반도에 퍼지네
구주예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두손을 한데모아 마음과 뜻과 정성다해
우리주께 비옵나니 우리기도 들으시고 주님나라 이루소서

오늘의 간구 말은이

생명창조 하신주님 우리기도 들으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하소서
우리들의 탐욕으로 파괴된 창조세계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죄를 아뢰입니다
기후위기 닥쳐와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죽음의길 탐욕의길 돌이키게 하옵소서
정의의 주님이여 우리회개 받으소서 위기현실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하나님 우리교회 깨우소서 생명파괴 고난받는 우리이웃 구하소서
생명이신 우리주님 우리들을 붙드소서 새하늘새땅 생명의길로 우리들을 보내소서
이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하신 창조주님
진실하게 주님뜻을 품는교회 되게하소서 피조세계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기후정의 실천하는 교회되게 하겠나이다 탄소중립 교회사명 이뤄지게 하옵소서

시편찬송 말은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은 주님이름	할렐루야 아멘
높고높은 저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올리어라	할렐루야 아멘
주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땅과바다 모든생명	할렐루야 아멘
낮의해와 밤의달아	할렐루야 아멘	주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홀로주님 이름만이	할렐루야 아멘
반짝이는 별들아	할렐루야 아멘	온천지에 높고높다	할렐루야 아멘
주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홀로주님 위엄만이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은 주님명령	할렐루야 아멘	땅하늘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지음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배찬송 “자연 속으로 오신 예수님”

다함께

채희동

이천진

굿거리(조금 빠르게, 부드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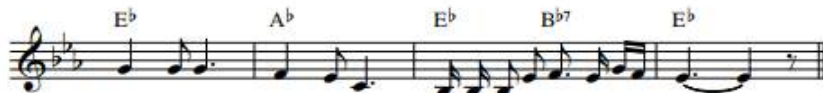
1.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세상을만 드실 때 -
 2.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 - 실 때 -
 3.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이땅에 불 어올 때 -



자연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으셨- 네 -
 들 꽃과 새가 있는 자연속에 오 시었- 네 -
 자연과 사람들을 한몸되게 하 시었- 네 -



강산과 만물가득 말씀이 충만하- 고 -
 주님의 길 가에는 백합화피어나- 고 -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불- 고 -



자연은 말씀을 아름답게 품고 사- 네 -
 자연은 주님을 고이 고이 모시었- 네 -
 자연은 사랑을 생기있게 살려 주- 네 -

◆ 말씀

중보기도 이 섭 목사
 (전주예벳교회)

말씀읽기 시편 104:24-30 유에스더 간사
 (한국YWCA연합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나누기 “새로운 세상의 못자리” 김기석 목사
 (청파감리교회)

◆ 보냄

결단찬송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함께

주현신 주현신

곳거리

1. 고마워요 고 마워요 창조 의 하 나 님 고 마워요
 2. 고마워요 고 마워요 사 랑 의 예 수 님 고 마워요

온 누 리 만 드 시 고 참 생 명 주 시 니 고 마 워 요
 미 움 을 물 리 치 고 참 사 랑 주 시 니 고 마 워 요

삼 천 리 금 수 강 산 하 나 님 주 신 동 산 위 에 -
 이 웃 을 네 몸 같 이 사 랑 하 라 신 말 씀 따 라 -

생 명 의 꽃 피 우 는 우리 땀 방 울 받 으 셔 요 -
 사 랑 의 꽃 피 우 는 우리 땀 방 울 받 으 셔 요 -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창 조 의 하 나 님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사 랑 의 예 수 님 고 마 워 요

하 나 님 주 신 이 땅 아 름 답 게 가 꿀 래 요 -
 나 누 고 섬 - 기 며 예 수 님 을 따 를 래 요 -

다짐의 약속 “2022 환경주일 선언문 낭독” 맡은이
 김인규 목사(다리놓는교회), 박세론 간사(EYCK)

파송의례 /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결단 예식” / 다함께

□ 초대사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생명이 생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드높이,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생명의 주님께 드리십시오.

회 중 :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기도

집례자 :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구나’ 감탄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잊고 사명을 외면하였습니다. 기후 위기로 못 생명이 스러져갔지만 ‘편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욕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길에서 돌이켜,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 중 :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약동하시어,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생태정의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 중 : 피조물의 아픔에 공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 결단의례

집례자 :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누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결단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회 중 : 삼위일체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이 의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례자 :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고이 심습니다.

회 중 :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의 창조신앙 안에 임재하소서.

(씨앗을 심습니다.)

집례자 :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아름답게 가꾸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묘목을 심습니다.

회 중 : 주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생태정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묘목을 심습니다.)

집례자 :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물이 되어 피조세계 못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회 중 : 생태영성으로 진실하게 길어올린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되
겠습니다.

집례자 : 메마른 땅에 생기를 솟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탄소중립을 결단하는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소서.

회 중 : 아멘.

(화분에 물을 줍니다.)

집례자 : 오늘 우리는, 2022년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탄소중립 실천을 결
단하며 신앙의 의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생태영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체없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탄소
중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의 소망을 담은 이 의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갈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마
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 중 : (일어서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축도 안흥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고기교회)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18-19)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주의에 빠져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재해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섰다운 시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약탈한 우리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만이 아닌 지구, 자연,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장주의에 빠져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피조물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기후위기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기후난민의 고통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조세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탐욕의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 부끄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편리와 이윤이 아니라 불편과 비움을 몸으로 이루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은총을 덧입은 녹색그리스도인이 되어 기후정의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생태적 불의에 맞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교회,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영성과 창조세계에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 누리의 살롬을 이루는 녹색은총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도전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기본으로 되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무지와 욕망의 세계에 다 빼앗겨 버린 '사랑', 바로 그 좁고 험한 길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구원의 목소리에 기쁘게 응답하여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길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가 먼저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태워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생태정의, 기후정의를 이루어 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22년 제 39회 환경주일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2050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작업으로 '한국교회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감으로써 진정한 기후정의를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 우리는 지역별로 '기후정의학교'를 진행하여 기후정의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고, 지역의 생태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태정의를 모색하는 한국교회의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우리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생태적 그리스도인과 녹색교회의 본을 보여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주신 탄소중립의 소명을 깊이 새기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가 되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2년 5월 24일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참가자 일동